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화로신 주(찬50/새35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주 장로 2부/김병찬 장로 3부/김성균 집사 4부/김지인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혜(박재형 편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사도행전(Acts) 14:19-28.....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2:43-47

말씀 Message1, 2, 3부..... Rev. Peter Joo **주성필 목사**

능동적 고난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44): 은혜의 사이즈와 즐거움의 불륨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부/이 세상 험하고(찬197/새263장) 2, 3부/예수, 늘 함께 하시네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축도 Benediction Rev. Peter Joo **주성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묘비명 그리스도인

Epitaph – Christian



주성필 목사 / Rev. Peter Joo

이번 한국선교 140주년 역사비전탐방의 진한 감동이 아직도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과 최초의 교회가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세워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140년 전인 189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할 때 일본 유학 중이던 이수정을 만나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왔고, 이에 앞서 존 로스 선교사는 서상륜과 함께 1882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인 <예수성고 누가복음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비밀리에 보급하던 서상륜이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면서, 1883년 황해도 소래에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던 섬티아고 순례길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들, 모처럼 맛본 갖가지 맛깔스러운 음식들, 잘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던 믿음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마음에 담겼지만, 그중에서도 선교사 묘원과 묘비명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할버트의 묘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고, 24살 처녀로 입국해 9개월 만에 소천한 루비 켄드릭은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의료와 선교를 병행하며 의사이자 목사로 살았던 오웬의 묘비에는 'Owen'이라는 그의 영문 이름 위에 '오목사'라고 적혀 있고, 손양원 목사의 삼부자 묘역 앞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마태복음 5장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삶의 흔적들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내 삶의 끝자락에서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한마디로 나의 묘비명을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까, 나의 삶을 추모하는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회상하며 뭐라고 기록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귀가 남아 있기를 원하시는지요? 요즘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삶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었다는 말이겠지요. 어쩌면 순교의 삶을 살다 간 선교사들은 선교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이겠지요.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오늘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묘비명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힐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보람되고 귀한 인생은 없지 않을까요? 묘비명-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 이사 간 000.

The deep emotion from this 140th Anniversary Historical Vision Trip of Korean Missions still lingers in my heart. Among the many impressions left upon me, two stood out most clearly: first, that the Bible entered Korea before the missionaries, and second, that the first Korean church was established not by a foreign missionary, but by a Korean believer. In 1895, 140 years ago, when missionaries Underwood and Appenzeller entered the country, they met Lee Soo-jung, who had been studying in Japan, and brought with them the Gospel of Mark. But even before that, in 1882, missionary John Ross, together with Seo Sang-ryun, had published The Book of Luke of Jesus Christ — the first portion of the Bible translated into the Korean language. Seo Sang-ryun, who secretly distributed this Bible, crossed the border preaching the gospel, and in 1883 established the first Korean church in Sorae, Hwanghae Province.

While walking under the rain along the Sum-tiago pilgrimage trail, I carried with me many memories — the flavorful foods we enjoyed after a long day, and the little-known, hidden stories of faith. Many of these remain quietly treasured in my heart, but among them, the missionary cemetery and its epitaphs are truly unforgettable. On the tombstone of Homer Hulbert, who loved Korea more than the Koreans themselves, are inscribed: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Ruby Kendrick, who came to Korea as a 24-year-old young woman and passed away after only nine months, left behind this epitaph: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On the tombstone of Owen, who lived as both a doctor and a pastor, uniting medicine and mission, the Korean phrase "Oh Mok-sa" (Pastor Oh) is written above his English name, "Owen." And before the grave of Pastor Son Yang-won and his two sons is inscribed from Matthew 5: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In all these, one can sense the traces of lives that did not consider their own lives dear, for the sake of the mission entrusted to them by the Lord Jesus.

Then suddenly, I thought — if at the very end of my life I were to write my final words to leave in this world as my epitaph, how would I write them? How would my descendants, remembering my life, recall me and record it? What words would you wish to remain on your own epitaph? These days, as I spend my Quiet Time in the Book of Acts, I read that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Antioch. That means that whoever looked at them could clearly see that their lives were ruled by and belonged to Christ. Perhaps those martyred missionaries — before they were ever called missionaries —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and they faithfully lived as Christians according to their calling, even unto the place of martyrdom. We too, among countless people, have been specially called as Christians and are living today on this earth. Then wouldn't there be nothing more precious and meaningful than to live such a life that, on our final epitaph, we could confess, "I was a Christian," and that anyone who saw it could say, "Indeed, this was a Christian"? Epitaph: Having lived on this earth as a Christian, and having been called to move to the Kingdom of God — (nam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주성필 목사

능동적 고난 사도행전 14:19-28

1. 고난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지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눠 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정리해 봅시다.
 - 자업적 고난:
 - 수동적 고난:
 - 능동적 고난:

2.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피할 수도 없는 수동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눠봅시다.

3. 사도 바울이 당한 수동적 고난을 통해서 얻게 하셨던 고난의 유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돌에 맞는 고난(행14:19, 고전15:9-10) →
 - 고난에서 일어난 바울(행14:19-20) →
 -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딤후3:11, 딤펢전1:1-2) →

4.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장 가깝고 수월한 여정 대신 더 험하고 먼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행14:22)

5.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어떤 점에서 가장 최상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참고 눅22:42, 히 12:2) 오늘 주를 위해 스스로 선택해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적용하기



■ 적용찬양: 1부 이 세상 험하고(찬197/새263장) 2, 3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역 소개
상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



저는 2025년 한해동안 베델교회의 상조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몇 년 전 부모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베델교회

장례팀의 도움과 따뜻한 위로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장례 예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그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상조 사역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깊은 슬픔에 잠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의 과정을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황망해하는 유가족들에게 상조팀 봉사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유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상조사역은 유가족분들이 목장 목사님들과 함께 장례 날짜와 절차를 협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배가 준비되고, 이후 교회에서는 장례 예배 주보를 제작하여, 예배의 순서와 고인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아냅니다.

장례 예배는 베델교회 비전 채플에서 주중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기도합니다.

상조사역팀의 섬김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찬양 반주자를 비롯해서 유가족을 위해 조문객 안내, 화환, 고인의 삶을 돌아보는 영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섬깁니다.

상조팀의 홍 권사님은 이 사역을 통해 얻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많은 분들의 마지막 천국환송예배를 드릴 때면 언젠

가 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를 상상해보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상조 사역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상조 사역은 비록 슬픔과 이별을 다루지만, 결코 절망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으로 고인을 환송하는 기쁨과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있기에 참으로 은혜롭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상조 사역은 슬픔을 넘어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지종필 집사

사역 간증
기도학교

어쩌면 주님은 이리도 사랑이실까!



저는 6월 1일 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떠올리며, 암은 저에게 고난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중 몸에서 종양이 빠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며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빠졌지만 여전히 예배드릴 힘을 얻었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 셀목자님께서 기도학교를 권유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더 훈련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새로 시작한 기도의 습관은 아침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외에도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시간 정도 중보기도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잘 지켜 하다가도 항암 치료로 몸이 힘들어 누운 채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시간 내내 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꼭 있고 싶었습니다. 몸이 힘들어 기도 제목을 다 아뢰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학교에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다 아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그 기도의 처소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리도 사랑이실까!'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매주 기도학교 모임 시간이 기다려졌고, 기도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시간은 천국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지체들이었지만 매주 함께 기도하며 더 담대해졌고 겸손해질 수 있었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생긴 기도 습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니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서혜원 집사



교회 방문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낸 사랑

안녕하세요? 지난 8월 31일과 9월 7일, 두 주일 동안 베델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던 신남순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따라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면한 차량팀의 헌신과 따뜻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마치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기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차량팀의 미소를 뒤로하고 교회 앞마당에 들어서자, 예쁘게 정돈된 커다란 우산들 아래 삼삼오오 모여 앉아 친교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새신자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따스한 음료, 정성이 담긴 각가지 음식들, 화기애애한 밝은 미소로 환대해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 사랑과 믿음의 도전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예배 봉사 위원들의 예쁜 미소가 저를 반기며 주보를 건넸죠. 책자처럼 만든 이런 주보는 처음 대했어요. 교회에 대한 상세한 소식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놓은 것도 너무 좋았어요. 찬양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찬양은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호세아서 설교 말씀, '포기할 수 없는 속 시린 사랑'에서는 missing link but God, 또다시 용서하시고 공활히 여기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세아서에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호세아서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게 하신 목사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가시로 담을 쌓는 사랑',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착각하며 위험한 길로 가는 우리 앞에 가시로 담을 쌓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왔지만, 김한요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 QTin으로 매일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시기 강해 말씀도 묵상하며 베델가족과 함께 합니다. 너무 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누구든 얼바인 캘리포니아를 여행하거나 이사한다면 꼭 소개해 주고 싶은 교회, '베델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신남순



예삶 새가족 사역

기대감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예삶에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은 다양한 이유와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 직장으로 이주하신 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오신 분, 믿음이 없지만 교회가 궁금해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과 사모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결국 새가족분들이 예삶으로 나아온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삶 새가족팀은 새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해 팀에 들어오기 전 4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일 예배당 앞과 새가족 데스크에서 처음 방문한 영혼들을 환영하고, 예배 후에는 예삶에 대해 소개하며 간단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삶에 등록된 새가족들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새가족팀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 언젠가 뿌리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새가족들은 각 청년 공동체의 셀에 배정됩니다. 셀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던 청년이 새가족으로 예삶에 등록하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뜨겁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청년들이 리더십이나 사역으로 공동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새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담감 또한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날, 그 자리에 항상 새가족팀이 새가족의 옆에 있기에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받는 거룩한 부담감임을 알기에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예삶 새가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베델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지섭(청3)

교회학교

유치부 소개

눈높이 예배



베델교회 유치부는 카페테리아 맞은편에 위치한 할렐루야채플에서 예배드리며, 티나 목사님과 24명의 교사, 24명의 TA 선생님, 그리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3세부터 5세(Pre-K)까지의 7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유치부의 사역은 단순히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정체성을 세우고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작지만, 우리 아이들은 주일예배와 큐티, 말씀 암송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과 기쁨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드려지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됩니다. 예배는 '마음(Heart), 바이블(Bible), 헌금(Offering)'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율동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말씀을 이야기 형식으로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크래프트 활동과 기도 시간은 아이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유치부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는 헌신된 교사팀입니다. 24명의 교사와 24명의 TA 선생님들은 매주 기도와 준비로 아이들을 섬기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으로 품습니다. 교사들은 단지 교육자가 아닌, 믿음의 롤모

델이자 영적 안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부는 가정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매주 말씀 요약과 활동지를 제공하여 부모님이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매월 초에는 큐티와 말씀 암송을 장려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전달합니다.

유치부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의 시간이 기쁨과 기대가 되는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치부는 오늘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민주 권사

성례 간증

유아 세례

놀라운 선물



9월 21일, 저희의 첫 딸, 이서가 유아세례를 받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한 벅찬 감사와 함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것이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서의 이름의 뜻처럼, 항상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아이로 양육할 책임과 소망을 함께 받았습시다.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기쁜 날들이 넘쳐나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습시다. 그럴 때마다 이서의 뜻을 기억하며 저와 아내가 먼저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저희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이서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인 저희가 먼저 본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겠습니다. 이서에게 우리의 신앙이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부부에게 부여하신 사랑을 묵묵히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기민/박은숙

저희 태유(Kaylee)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유가 태어나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기까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가정에 첫째 '태리'가 태어나고, 태유를 만나기까지 6년이 지났습시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3명의 아이를 허락 하셨다가, 모두 중도 유산하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시다. 그 때는 저희 가정에 주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라 생각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에 태리를 통해 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며 감사할 수 있었습시다. 그 때, '태유'가 찾아 왔고, 이전 잦은 유산으로 불안해 하며 조급해 하던 때와 달리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40주를 무탈하게 견디고 '태유'를 안으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었습시다. 서서히 걸음마를 시작하는 '태유'가,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종현/김소영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배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배채플: 이형석 목사
- 예배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아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아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배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The Bridge Concert

'The Bridge Concert'는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자선 음악회입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어 '상처 입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리(Bridge)'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무대를 총 연출하는 피아니스트 공민(Paul Min) 선교사는 과거 유재석·유희열 등이 소속된 기획사 '안테나(Antenna)'의 공연 디렉터로 활약하였으며 동방신기, 빅뱅 등 정상급 K-POP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목격한 후, 화려한 무대를 떠나 일본의 재해지역에서 음악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현재까지 정서적 회복과 복음의 위로를 전하는 음악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그와 함께 걸어온 탁월한 예술가들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 아이오이 료쿠헤이(Ryokuhei Aoi): 일본의 국민적 극단 '시키(四季)' 소속 테너, 뮤지컬 캣츠, 오페라의 유령, 노트르담의 종 등에 출연 중. 일본 무대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배우로 평가.
- The Bridge Singers: 국경을 넘어 희망의 하모니를 노래하며, 재해 지역의 아픔을 어루만져온 미국과 일본, 한국 출신의 3인 보컬 유닛
- 스가 나오코(Naoko Suga): UCLA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켄터키 오페라, 오페라 아이오와 등 미국의 주요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동한 실력자.



또한 이날 무대에는 한일 연합 합창단과 유스 중창단이 출연하여 언어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음악, 영상, 조명, 연출이 어우러지는 이 밤은 예술과 복음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감동의 현장에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 ▶ 일시/장소: 2025년 10월 25일(토) 오후 6시(오후 5시 30분부터 입장가능), 베델교회 본당
- ▶ 티켓 안내: 개인 \$40, 커플(2인) \$60, 가족(4인) \$100(주일 본당 앞 부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 문의: 손용주 목사 (949)854-401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11월)	10/19: ①부-김민권	②부-김세진	③부-김용진	④부-남경인
	10/26: ①부-김재호	②부-김정태	③부-김재훈	④부-박희주
	11/2: ①부-다무라고조	②부-김종학	③부-김진원	④부-변은재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0,11월) | 10/18: 김정욱 10/25: 김종철 11/1: 김호경 11/8: 김종현

강단꽃(10,11월) | 10/12: 윤성자, 최경식 10/19: 이수민, 최지은 10/26: 이인철 11/2: 황미동, 황성희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홍일(성형외과), 간호사-박필연 다음주 | 의사-장진석(가정의학과), 간호사-황미례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10월 15일, 저녁 7시 30분, 배흥수 목사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베델 어린이 크리스마스 합창단** 2025년 성탄절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베델 어린이 크리스마스 합창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등록비: 2-8학년, \$50
 오리엔테이션 일시/장소: 10월 18일(토) 오전 7시 30분-9시, EM 채플
 연습 시간/장소: 10월 25일(토)-12월 20일(토), 매주 토요일, 본당 2층 찬양채플



<신청>

<찬양 목록>

◆ **동일본 대지진 15주년 기념 The Bridge Concert** 15년 전 동일본 열도를 뒤흔든 대지진과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재난이 지나간 그 땅에는 더딘 복귀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와 도움을 전하기 위한 자선 음악회가 열립니다.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 아픈 역사를 공유한 두 나라 백성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이번 공연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10월 25일(토) 오후 6시, 본당
 티켓 구매 문의: 코바야시 지나 권사 (213)531-7388

◆ **교회학교 2025 Family Fall Fest X OICOF 등록** 베델 온 가족 축제인 Family Fall Fest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등록 링크는 각 부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 10월 31일(금) 오후 4시 30분
 대상: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추수감사축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축제 'The Story of Bethel'로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목장별로 온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장기 자랑과, 전교인 만찬 저녁 식사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Family Fall Fest에 자녀들을 위해 사용할 캔디 도네이션을 받는 캔디 드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캔디 드라이브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립니다. 견과류 제품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대상/문의: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각 부서 전도사

◆ **101차 베델동산 모집** 101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4일(금)-11월 16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집사 (949)232-0872



<참가자>

<봉사자>

◆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 모집**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참여 지역: 의료 지역, 복음 전도 지역, 어린이 지역 등
 선교 기간: 12월 3일(수) - 11일(목)
 문의: 박성남 집사 (949) 697-8531

◆ **주소 변경 업데이트** 이사하시거나 거처를 옮기신 이후에 미처 주소 변경 사항을 교회에 알리지 못하신 경우 변경된 주소를 헌금봉투에 기입해 주시거나 행정사무실에 오셔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입교 신청**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6일 주일 예배 3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 9월 28일(주일)-10월 12일(주일), 홈페이지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 교인(6개월 이상 출석)
 교육 일시: 10월 19일(주일), 10월 26일(주일), 11월 2일(주일) 오후 12시30분
 교육 장소: 107호(교회학교는 각 부서에서 교육 진행)
 문의: 박세환 장로 (949)887-6944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금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축하해 주세요**
 밀라랜드/밀라해경 집사의 아들 Kenneth Millar 군의 결혼식이 9월 27일(토)에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성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Active Suffering

Acts 14:19–28

1. There are countless kinds of suffering in life, but if we were to categorize them into three types, how could we define each one?
 - Self-inflicted suffering:
 - Passive suffering:
 - Active suffering:

2. When we face passive suffering — suffering that comes suddenly, beyond our control, and cannot be avoided — what kinds of thoughts or feelings arise within us?

3. Let's talk about the spiritual benefits that God allowed the Apostle Paul to experience through his passive suffering.
 - The suffering of being stoned (Acts 14:19; 1 Cor. 15:9-10) →
 - Paul rising again from suffering (Acts 14:19-20) →
 - Timothy, his son in the faith (2 Tim. 3:11; 1 Tim. 1:1-2) →

4. Instead of taking the easiest and shortest route from Derbe back to Syrian Antioch, Paul chose the harder and longer path. Why do you think he made that decision? (Acts 14:22)

5. In what way can we say that the suffering Jesus endured was the highest and ultimate form of suffering? (See Luke 22:42; Heb. 12:2) Let's reflect on this and make a personal decision today to actively choose to share in suffering for the sake of the Lord.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